

東歐圈 國家의 大學 실태와 교류 전망

—폴란드를 中心으로—

丁 炳 權

(韓國外大 폴란드語科)

1. 머리말

2차 대전 이후 蘇聯의 영향력 하에 소위 소련 블록(bloc)을 형성했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등 東유럽 국가들은 '80년대 후반부터 體制의 근본적인 改革과 對外 開放政策으로 急旋回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의 主要原因들은 戰後 계속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한 國民經濟의 파탄 상태와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 등 사회주의 국가 內部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개혁과 개방의 기치 아래 추진되고 있는 東유럽의 民主化 政策은 지금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은 東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근본적인 性格과 方向은 西方國家들과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에 있다기보다는 2차 대전 후 거의 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西方世界와의 교류와 접촉을 再開하려고 한다는 觀點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東유럽 국가들은 원래의 位置와 軌道를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東유럽 대부분의 國家들은 蘇聯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西歐文化圈에 속하는 나라들로서 서구 문화의 흐름 속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戰後

소련에 의한 蘇聯式 社會主義體制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부적이었다. 그러나 戰後 국제 정세가 이들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80년대까지 소련의 影響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東유럽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 간의 政治·經濟·社會·文化的 交流은 이미 '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성격과 규모 면에서 형식적·제한적인 範圍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時代와 狀況이 변하였다. 內的으로는 民主化 改革이 社會 全般에 걸쳐서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外的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障礙要因이었던 소련의 東유럽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감소되고 있고 소련 내부에서조차도 對東歐政策을 둘러싸고 黨內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東유럽 국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폴란드의 大學教育和 學問研究의 現況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의 學術交流의 可能性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폴란드의 文化的 背景

폴란드는 10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국가를 건

설하고 끝이어 로마 카톨릭教를 國敎로 수용했던 나라이다. 이때부터 폴란드는 政治的·文化的으로 西유럽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로마 카톨릭教 世界의 最邊方에 위치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폴란드와 스페인은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폴란드에 있는 야기엘로니아大學(Uniwersytet Jagielloński: UJ)은 1364년에 건립되었는데 이는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大學 중의 하나이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크大學(1368년 설립)보다도 20여년이나 앞서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폴란드 大學의 傳統이 어느 정도로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다. 中世 폴란드에서는 유럽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라틴語가 知識社會의 共用語였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폴란드 일부 大學에서는 學位論文을 라틴語로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폴란드에서 敎育은 이미 13세기부터 體系的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敎育의 주된 內容은 聖職者 양성을 위한 종교 敎育이었다. 16, 17세기의 폴란드 敎育은 反動 宗教改革의 추진 세력이었던 예수회와 로마 敎皇廳의 敎育聖省 소속의 피아리스트(Piarist)들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이때부터 폴란드 文化는 종교적 기반 위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5세기 이후 폴란드에서는 神學은 물론 天文學·歷史學·政治學·法學·數學·文學·哲學·醫學·物理學·化學·經濟學·社會學·言語學·生物學 등 여러 學問分野에서 當代의 세계적 學者들이 꾸준히 배출되었다. 地動說을 제창한 코페르니쿠스(Mikolaj Kopernik, Copernicus, 1473~1543)도 이 중의 한 사람이다.

1773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늘날의 文敎部에 해당되는 民族敎育委員會(Komisja Edukacji Narodowej)가 발족되었다. 이는 國民敎育에 대한 당시 폴란드 정부의 지대한 관심도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民族敎育委員會는 폴란드의 모든 敎育機關을 관장하고 敎育의 內容面에서도 從來 敎育의 宗教性을 止揚하여 국가 忠勇에 기여할 수 있도록 一大改革을 단행했다.

15, 16세기 폴란드는 中部 유럽의 強大國으로

서 그 領土도 한때 北으로는 발틱海로부터 南으로는 黑海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支配階級(magnat)의 분열과 이기심 때문에 18세기 후반 주변의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分割(rozbiór)되었다가 1차 대전 후에 비로소 獨立을 회복했다. 18세기 폴란드는 주변 국가들과는 달리 絕對君主國家가 아니라 貴族共和國(rzeczpospolita)이었다. 폴란드 歷史에서 1인 專制時代는 한번도 없었다.

폴란드 文化는 123년 동안의 外國 支配 하에서도 占領國들의 文化에 흡수되거나 병합되지 않고 民族文化의 獨立性과 固有性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이 分割時代(1795~1918)에 文學·音樂·科學分野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까지 폴란드에서 民族의 師表로 추앙되고 있는 아담 미츠크비츠(Adam Mickiewicz : 1798~1855), 울리우스 스오바츠키(Juliusz Slowacki : 1809~1849), 지그문트 크라신스키(Zygmunt Krasiński : 1812~1859)는 民族詩人(wieszcz)으로서 폴란드 文學을 世界文學(Weltliteratur)의 水準으로 끌어 올렸다. 音樂家 쇼팽(Fryderyk Szopen, Chopin : 1810~1849)은 作曲家로서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로서 폴란드 音樂을 세계에 宣揚했다. 두 차례나 노벨상을 받은 바 있는 마리아 퀴리(Maria Sklodowska-Curie : 1867~1944)는 物理學과 化學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퀴 바디스? (Quo Vadis?)」의 作家 헨릭 센케비츠(Henryk Sienkiewicz : 1846~1916)는 1905년에 노벨 文學賞을 받았다. 이는 國家를 갖지 못했던 民族의 文學에 수여된 유일한 노벨 文學賞이다. 이것은 폴란드民族이 國家民族(Staatsnation)은 못되더라도 文化民族(Kulturnation)으로서 國際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實例이다. 이처럼 民族의 暗黑期에 藝術과 學問이 더욱 발달되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외에도 獨立 후에 文學에서는 1924년에 「農夫들」을 쓴 브와디스와프 레이몬트(Wladyslaw Reymont, 1867~1925)가 노벨 文學賞을 받았고, 1980년 自由勞組(NSZZ : Solidarność)가 社會主義 政府와 대결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詩人 체

스와프 미오쉬(Czeslaw Milosz : 1911~)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1953년에 발표된 그의隨筆集「隸屬된 靈魂(Zniewolony Umysl)」은 스탈린 時代에 파괴되어 가는 人間性을 가장 예리하게 분석한 作品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3. 폴란드의 大學 歷史와 傳統

이미 14 세기에 西歐 수준의 學問의 背景을 갖추었던 폴란드 大學은 서구 文藝思潮와 호흡을 같이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유럽 내에서 국가간의 學問的 交流가 자유로웠던 中世에는 서구의 수 많은 知識人과 學者들이 폴란드 大學에서 공부했다. 물론 당시에는 유럽이 東·西로 구별되지도 않았다.

外勢支配 하에서 폴란드 大學들은 學問研究와 教育 이외에도 民族運動의 求心點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폐쇄의 운명을 겪기도 했지만, 學問研究의 脈은 부단히 이어졌다. 教授들은 占領國의 監視를 피해서 ‘날은 大學(unwersytet latajacy)’을 조직하여 장소를 옮겨가면서 教育과 研究를 계속했다. 이와 같은 교수들의 불굴의 學究熱과 教育熱 덕택에 1918년 독립 후 높은 수준의 대학들이 신속히 재건되고 전통이 계승될 수 있었다.

2차 대전중 독일 점령 하에서 폴란드의 모든 대학은 폐쇄되고 70% 이상의 교수들이 나찌 수용소에서 희생되었지만, 소수 교수들을 중심으로 바르샤바, 크라카우, 포즈난에 ‘지하 비밀대학(tajny uniwersytet)’이 조직되어 독일에 의해 파괴된 大學教育의 命脈을 이어왔다. 나찌는 특히 폴란드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가혹했다. 지하대학이 적발되면 관계자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되는 삼엄한 점령 통치 하에서도 교수들은 목숨을 걸고 연구와 教育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폴란드인들의 필사적인 학구열의 일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지하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反獨 레지스탕스 요원으로 활약했다. 2차 대전중 대학의 人的 희생만큼 物的 희생도 많았다. 대학 건물과 도서관 장서의 60% 이상이 파괴·소실되었다. 이처럼 막대한 희생을 치르기도 2차 대전 후 폴란드의 大學들은 빠

른 속도로 體制를 재정비했고 學問的 水準을 西유럽 大學들에 비해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教育機關의 再建과 擴充, 국민의 文盲率을 零으로 떨어뜨린 점은 戰後 폴란드 社會主義 政府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4. 폴란드의 教育制度

폴란드의 국민 教育은 無償教育, 教育의 非宗敎性, 기회 균등, 教育 制度의 開放性, 국민 생활과의 관련성, 평생 教育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폴란드의 어린이는 3세부터는 유치원에 다니고, 7세부터 14세까지 8년 동안 의무 教育을 받는다. 8년의 의무 教育을 마친 학생의 97% 이상이 적어도 3년 이상의 中等 教育 기관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이 적어도 11년의 教育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中等 教育 기관은 4가지 종류로 나눈다. 첫째는 4년 기간의 일반 고등학교 과정이다. 이 과정은 졸업 시험(matura)을 치루고 마치게 된다. 졸업 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별로 실시하는 입학 시험 성적에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둘째는 4~5년 동안의 기술직업학교 과정이다. 졸업 후 직업을 갖거나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셋째는 3년 과정의 직업 학교로서 졸업생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동자(bluecollar worker)가 된다. 이들에게도 대학 입학 시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학 진학의 길이 열려 있다. 넷째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간의 전문 분야 教育을 마친 후에 교사·의료·기술·경제·예술 분야의 종사자가 된다. 이와 같은 中等 教育 이수자들은 모두 학교 성적과 입학 시험 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大學의 修學年限은 보통 5년인데 醫科大學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6년이다. 폴란드에서 大學教育은 無償이다. 그러나 外國 學生들은 寄宿舍費 등을 포함하여 상당 액수를 지불하고 있다. 야기엘로니아大學의 경우는 外國 學生들로

부터 寄宿舍費를 포함하여 연간 약 2,700 弗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大學마다 차이가 있고 현재 한창 논의 중이다.

폴란드에서 學年(academic year)은 10 월부터 이듬 해 6 월까지이다. 10 월부터 1 월까지가 1 학기에 해당되고 2 월부터 6 월까지가 2 학기이다. 폴란드 大學에서는 學士(B.A.)는 수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大學 졸업시에는 碩士(magister) 學位를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4 년제 大學과 大學院 과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폴란드 大學의 現況

폴란드에는 모두 91 개의 大學教育機關이 있다. 이 중에서 11 개는 종합대학교(uniwersytet)이고, 14 개는 종합공과대학(politechnika)이다. 나머지는 단과대학(academia, wyzsza szkola)인데 주요 단과대학을 살펴 보면, 의과대학 11 개, 농과대학 8 개, 사범대학 10 개, 체육대학 6 개, 예술대학 17 개, 공과대학 6 개 등이다. 이외에도 영화·TV 대학, 연극대학, 신학대학, 경제학대학, 해양대학, 통계학대학 등이 있다. 폴란드 대학 중 루블린(Lublin)에 있는 루블린 카톨릭대학교(Katolicki Uniwersytet Lubelski : KUL)를 제외하고는 모두 國立이다. 루블린 카톨릭대학교는 폴란드 카톨릭 교회 소속으로서 동유럽의 유일한 私立大學이다. 루블린 카톨릭대학교 이외에도 폴란드에는 2 개의 神學大學이 있는데 모두 國立이다.

1) 綜合大學校(Uniwersytet)

(1) 바르샤바大學校(Uniwersytet Warszawski)

바르샤바대학은 1816 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바르샤바는 비엔나 會議의 결정에 따라 新生된 폴란드 왕국의 수도였는데, 폴란드 王國의 왕은 러시아 황제(Zar)가 兼任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르샤바대학은 러시아 대학이 아니라 폴란드 대학으로서 강의는 폴란드어로 진행되었다. 1830 년 바르샤바에서 反러시아 武裝蜂起(11월 蜂起)가 일어난 후 20 여년 동안 러시아 정부에 의해

서 폐쇄되었다가 1857 년에 비로소 대학교육 기관으로서의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校名도 대학교(uniwersytet)가 아니라 고급 학교(szkola glowna)였다. 1863 년 바르샤바에서 일어났던 反러시아 蜂起(1 월 蜂起) 이후 바르샤바대학은 러시아帝國 바르샤바대학으로 대체되었다. 이 상태가 1 차 대전 때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바르샤바대학은 폴란드에서 러시아의 지배가 끝날 때까지 폴란드 대학이 아니라 러시아 대학으로 존재했다. 바르샤바대학은 1 차 대전중 19 15 년에 비로소 폴란드 대학으로서 다시 문을 열었다. 당시 저명한 學者들이 바르샤바대학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데, 특히 수학·기생충학·식물학·고생물학·물리학·세포학·철학·역사학·고고학·법학·어문학 분야에 탁월한 학자들이 많았다. 2 차 대전중 독일 점령(1939~1945) 하에서도 감시를 피해 지하에서 바르샤바대학은 연구와 강의를 계속했다. 이 지하대학 출신들이 폴란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바르샤바대학은 1945 년에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차 대전중 대학 건물의 70% 이상이 파괴되고 도서관 장서도 거의 대부분이 燒失되었다. 그러나 戰後에 신속히 복구되어 현재 바르샤바대학 도서관의 장서 규모는 500 만 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르샤바대학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소련의 대학 등 20 여 개의 대학들과 활발한 학술 교류를 하고 있다. 학술 교류 협정 체결 大學들과의 學生 교환 계획에 따라 바르샤바大學에서 수학하고 있는 外國 學生들에게 學位는 수여되지 않는다.

碩士(magister) 學位 취득자 중 공부를 계속 하려는 사람은 入學試驗을 거쳐 3년 기간의 博士過程을 이수한 후 論文이 시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博士學位를 받는다.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월 장학금이 지급된다.

바르샤바대학에서 강의는 폴란드어로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學位論文은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바르샤바대학은 東北 쪽에 있는 비아워스투에 제 2 캠퍼스를 갖고 있다.

(2) 야기엘로니아大學校(Uniwersytet Jagielloński : UJ)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서 1364년 카지미에르大王(Kazimierz Wielki:1310~1370)에 의해서 이탈리아 파드와(Padua)대학(1222년 건립)과 볼로니아(Bologna) 대학(12세기 건립)을 모델로 하여 설립되었다. 1400년에 브와디스와프 야기엘오(Wladyslaw Jagiello : 1352~1434)에 의해서 소르본(Sorbonne)대학을 모델로 개편되었다. 15세기에 지동설을 제창했던 코페르니쿠스가 이 대학에서 修學했고, 현재의 敎皇 요한 바오로 Ⅱ세(Karol Wojtyla : 1920~)가 이 대학 졸업생이다. 야기엘로니아大學校는 19세기에 합理主義의 영향을 받아서 체제와 교육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오랫동안 오스트리아의 지배 하에 있었던 크라카우에 있는 야기엘로니아대학과는 다르지만 수난을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1939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함에 따라 야기엘로니아대학교는 폐쇄되고 2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전쟁중에 희생되었다. 독일 점령 하에서도 야기엘로니아대학의 일부 교수들에 의해서 지하 비밀 대학이 운영되었다. 戰時中에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지하대학을 졸업했다. 1945년에 재건된 야기엘로니아대학교는 특히 서방 국가의 대학들과 학술 교류가 활발하며 다른 대학에 비하여 광범위한 자율권을 누리고 있다. 야기엘로니아대학교에는 30개의 부설 연구소가 있으며 도서관에는 300여만 권의 책이 있다.

(3) 브로츠와프大學校(Uniwersytet Wroclawski)

브로츠와프는 2차 대전 이전에는 독일 도시였다. 브로츠와프大學의 前身은 16세기에 설립된 인문계 고등학교(Gymnasium)인데 1811년에 大學으로 승격되었다. 2차 대전 후에 브로츠와프가 폴란드 領土로 편입됨에 따라 브로츠와프大學도 폴란드 大學으로 개편되었다. 브로츠와프大學 교수의 대부분은 戰前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르브프(Lwów)大學에 있던 교수들이다. 따라서 브로츠와프大學은 독일 大學의 傳統에 새로이 르브프大學의 傳統을 계승하게 되었다. 외국 대학들과 활발한 학술 교류를 하고 있

는 브로츠와프대학의 강의는 폴란드어로 진행되지만, 學位論文은 영어, 독일어, 라틴어, 러시아어로 작성할 수 있다.

(4) 루블린 카톨릭大學校(Katolicki Uniwersytet Lubelski)

1918년에 설립된 대학으로서 폴란드 主敎團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유럽에서 유일한 私立大學이다. 1939년 독일에 의해서 폐쇄되었다가 1944년에 재건되었다. 서방 국가의 카톨릭대학들과 학술 교류가 빈번하다. 이 대학 부설 폴란드 敎會史연구소, 교회음악연구소, 敎會神學연구소 등이 특히 유명하다.

(5) 포즈난大學校(Uniwersytet IM. Adama Mickiewicza w Poznaniu)

1919년에 건립되었지만, 2차 대전중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전후에 대학 건물이 복구되고 조직도 개편되었다. 서방 대학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대학 중의 하나이다. 강의는 폴란드어로 진행되지만, 외국인 교수는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으로 강의할 수 있다. 이 대학 도서관에는 270여만 권의 책이 있다.

이외에도 그다인스크대학교(Uniwersytet Gdański, 1970년 설립), 실롱스크대학교(Uniwersytet Śląski, 1968년 설립), 우치대학교(Uniwersytet Łódzki, 1945년 설립), 루블린대학교(Uniwersytet Marii Curie-Skłodowskiej, 1944년 설립), 토론대학교(Uniwersytet Mikolaja Kopernika w Toruniu, 1945년 설립), 시체친대학교(Uniwersytet Szczeciński, 1984년 설립) 등이 있다.

2) 綜合工科大學(Politechnika)

(1) 광산-제철대학(Akademia Górniczo-Hutnicza IM. Stanisława, Kraków)

1919년 광산대학으로 출발하여 1949년에 현재의 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외국의 대학 및 연구소들과 학술 교류가 활발하다. 이 대학에는 34개의 연구소가 있다. 강의는 폴란드어로 진행된다. 學位論文은 예외적으로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바르샤바종합공과대학(Politechnika Warszawska)

1926년에 설립되었다. 1830년에 러시아가 정부에 의해서 폐쇄되었다가 1898년에 재건되었다. 1915년에 종합공대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學位論文은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3) 그다인스크종합공과대학(Politechnika Gdańska)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외국 대학과 교류가 활발하다. 강의는 폴란드어로 이루어지고 있지만,學位論文은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로 작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크라카우종합공대(Politechnika Krakowska, 1945년 설립), 우치종합공대(Politechnika Łódzka, 1945년 설립), 루블린종합공대(Politechnika Lubelska, 1907년 설립), 제스프종합공대(Politechnika Rzeszowska, 1951년 설립), 포즈난종합공대(Politechnika Poznańska, 1907년 설립), 실롱스크종합공대(Politechnika Śląska, 1945년 설립), 키엘체종합공대(Politechnika Świętokrzyska w Kielcach, 1951년 설립), 시체천종합공대(Politechnika Szczecińska, 1946년 설립), 브로츠와프종합공대(Politechnika Wroclawska, 1945년 설립) 등이 있다. 이 대부분의 종합공대에서는學位論文을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3) 單科大學(Academia, Wyższa Szkoła)

폴란드에는 특히 單科大學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전에 종합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다가 단과대학으로 분리·독립한 大學도 많지만, 처음부터 단과대학으로 출발한 大學이 대부분이다. 이들 단과대학은 주로 관련 분야가 특히 발달되어 있는 등 地域의 특수성에 따라 全國各地에 균형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폴란드에서 단과대학은 産·學 협력 체계 강화, 균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 문화적 낙후 지역 해소 등의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단과대학에는 종합대학에는 없는 학과가 많기 때문에 특수 전문 분야를 공부하려는 사람은 단과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도 博士까지의學位는 수여되고 있으며, 修學年限도 종합대학과 대

체로 같다. 단과대학들의 外國의 대학 및 연구소와의 학술 교류 현황은 종합대학에 비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더 활발하다.

6. 폴란드學術院(Polska Akademia Nauk : PAN)

폴란드에서 學術研究는 大學教育機關, 폴란드 學術院 그리고 政府 각 部處 소속의 研究所 등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 기관은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폴란드 學術院은 특히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맡고 있으며, 政府 소속 연구소들은 應用科學 분야 연구에 주력하고 大學은 양자를 병행하면서 政府와 產業體로부터 위임받은 특수 과제를 연구한다.

1952년에 설립된 폴란드 學術院은 폴란드 최고의 學術機關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폴란드 학술을 代表하고 있다. 西方國家들의 학술원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폴란드 학술원은 폴란드 여러 도시와 國外에 支部를 두고 있으며, 학술의 대표 기관이라는 形式的 性格뿐만 아니라 外國의 大學과 연구소 등 학술 기관들과 활발한 학술 교류를 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 소속의 연구소 및 산업체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폴란드 學術院은 폴란드 학술 연구의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 연구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기관들의 연구 활동을 지휘·감독하면서 폴란드 학술·연구 활동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폴란드 學術院은 二重的인 性格을 가진 기관이다. 첫째로는 學者들의 자율적인 학문 연구 기관이라는 점인데 學術院 회원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분야별로 폴란드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들이 선임된다. 다른 하나는 국가 기관이라는 점이다. 폴란드 학술원은 폴란드의 경제와 학술 발전에 관한 단기적 계획은 물론 폴란드의 미래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폴란드 학술원은 이미 '70년대초에 2000년대 폴란드의 발전 상태를 감안하여 '人間과 環境'

이라는 방대한 계획을 작성한 바 있다. 1988년 현재 폴란드學術院 정회원인 453명인데 이 중에는 세계 각국의 탁월한 학자들이 146명 포함되어 있다. 폴란드학술원은 7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분과는 철학·역사학·언어학·문학·경제·예술·법학을 포함하는 사회과학부로서 여기에는 16개의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다. 제2분과는 생물학부인데 여기에는 14개의 연구소가 있다. 제3분과는 물리·화학·수학부로서 17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제4분과는 공학부이다. 여기에는 9개의 연구소가 있다. 제5분과는 농업·임학부이다. 이 분과 소속 연구소는 6개이다. 제6분과는 의학부이다. 여기에는 5개의 연구소가 있다. 제7분과는 지질·광산학부로서 5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폴란드학술원에는 또한 80여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장서량은 모두 500여만 권에 이른다. 폴란드학술원의 각 분야별 산하에는 100여개의 학술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들은 정부의 과학·학술 관련 정책의 자문과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국가의 학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사실상이 위원회에 의해서 폴란드 학술 활동이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 폴란드의 國際學術交流

폴란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의 대학 및 연구소 등 학술 기관과의 학술 교류와 협력이 폴란드 학술 발전을 위해서 基本的이고 必須的인 요소라고 인식되어 왔다. '50년대에는 소련, 체코, 동독, 헝가리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학술 교류가 주로 공동 연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폴란드가 서방 국가들과의 본격적인 학술 교류 활동을 시작한 것은 '60년대 이후이다. 初期에는 주로 서방 세계로부터 선진 산업 기술 및 기계를 수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제한된 범위에서는 상호 特許交換도 이루어졌다. '50년대초에는 東·西 冷戰時代의 영향으로 西方國家들이 기술 및 노하우를 사회주의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禁輸 조치들은 '60년대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해제되었던 것이다.

서방 국가들과의 학술 교류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호 정보 교환, 연구원 교육 및 공동 연구 등의 형태이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폴란드와 학술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文化協定을 체결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양국은 연구원을 상호 교환할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및 국제 학술 회의의 공동 주최를 통해서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 또한 양국 사이에는 표준화·규격화 등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공동으로 연구소를 폴란드에 설치하기도 했다. 프랑스를 뒤이어 이탈리아와도 학술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했다. '70년대부터는 서독,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미국 등 서방 先進國家들과 학문과 기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폴란드는 무엇보다도 經濟的 이유 때문에 모든 학술 분야에서 서방 국가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폴란드는 경제와 기술 발전에 직결되는 시급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한편, 재정적 이유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소수 정예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폴란드의 대외 교류는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외국과의 학술 교류를 국가 경제 부흥과 학술 발달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 大學 및 연구소 등은 이미 '60년대부터 서방 국가들의 교육 및 학술 기관들과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연구원·학자들의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8. 우리나라와의 學術交流 展望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기는 1989년 11월 1일이다. 물론 이보다 1년 앞서 양국간에 무역사무소가 설치되어 경제 분야에서 상호 접촉이 시작되었지만, 이때까지 폴란드는 우리나라에게는 사회주의 불력 국가로 간주되어 사실상 양국간의 공식적인 人的·物的 교류가 거의 없었다. 공식 관계 수립

후인 지금도 폴란드는 여전히 우리에게서 未知의 나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열거하였듯이 폴란드는 文化的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국가로서, 특히 학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 폴란드의 대학과 연구소 등 교육·학술 기관들은 서방 어느 나라의 학술 기관에 못지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은 戰後 계속되고 있는 폴란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부분이다. 특히 폴란드는 수학·물리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을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核 연구 분야에서도 이미 '50년대에 核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나라이다.

폴란드의 수 많은 학자들이 U.N. 등 국제 기구 및 서방 국가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폴란드의 학문적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와 한국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가 맺어짐에 따라 양국 간의 학술 분야에서 人的·物的 교류는 날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양국 학자들 간의 학술적 교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 학생들의 研修 및 유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르샤바大學에는 이미 '50년대부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이미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바르샤바大學 이외에도 韓國語 강좌를 개설하려는 大學이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폴란드의 大學과 우리나라 大學間의 학술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韓國外大는 1989년에 폴란드의 야기엘로니아대학교 학

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학생의 폴란드 研修와 폴란드 교수의 초빙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학술 교류는 해마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 분야 교류에서 美·日·西유럽 일변도를 탈피하여 폴란드를 비롯한 東유럽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우리 學界는 새로운 地平을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參考文獻〉

- An Outline History of Polish Culture, interpreted, Warsaw, 1983.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International Handbook of Universities, Macmillan Publishers, London, 1983.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The, V. 7, Pergamon Press, Oxford, 1985.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The, V.7,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1977.
- J.K. Hoensch外, Polen-30 Jahre Volksdemokratie Göttingen, 1975.
- Mala Encyclopedia Powszechna, PWN, Warszawa, 1974.
- Maly rocznik statystyczny, GUS, Warszawa, 1989.
- Poland 1988, PAP, Warsaw, 1988.
- Polen 1976, Verlag Interpress, Warszawa, 1977.
- Polska, Zarys Encyklopedyczny, PWN, Warszawa, 1974.
- Warsaw University, WA, Warszawa, 1988.